5개 구 경유 타원형 노선…36대 운행 4분마다 정거장 도착

광주 도시철도 2호선 내일 기공식

전남대·조선대·시청·월드컵경기장 거쳐
단계별 공사 끝나면 부분 개통…1단계 2023년 개통
1대 정원 153명 무인운전시스템…정거장 총 44곳

5일 첫 삽을 뜨는 광주도시철도 2호선의 길이는 마라톤 풀코스(42.195㎞)에 조금 못 미치는 41.843㎞다.

전체 구간을 1~3단계로 나뉘어 공사가 진행되며, 단계별 공사가 끝나면 그때그때 부분 개통한다. 2025년 완전 개통이 목표다. 2호선 정거장은 모두 44곳이며, 한 대(2량)에 정원이 153명으로, 모두 36대가 타원형 노선을 순환한다. 정거장별 운행 간격은 4분으로 정거장에서 2분 정도만 기다리면 곧바로 탈 수 있는 구조다.

4분에 한 대씩 타원형 노선을 순환하는 2호선과 연결되는 기존 1호선에 더해 시내버스를 이용하면 광주 웬만한 곳은 30분이면 갈 수 있는 교통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5개구(區) 걸친 타원형…1~3단계 공사, 개별 개통 = 2호선은 광주 5개 자치구 주요 지점에 정거장을 둔다. 구 도심과 신도심, 전남대와 조선대 등 대학가, 시청 등 관공서, 월드컵경기장 등 편의시설을 두루 거친다. 1호선 남광주역과 상무역에서 교차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다만 1·2호선 모두 광천동 종합버스터미널과 기아챔피언스필드(야구장)를 거치지 않는다는 점은 2호선 공사 완료 후 별도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공사는 전체 구간을 1~3단계로 나누어 진행된다.

1단계 구간은 시청~상무역~금호지구~월드컵경기장~백운광장~남광주역~조선대~광주역 등을 거치며 노선 길이는 17.003㎞다. 정거장 20곳과 차량기지 1곳을 포함한다. 5일 기공식 이후 처음 공사가 진행되는 곳도 1단계 구간이다. 2023년 개통이 목표다.

2단계 구간은 광주역~전남대~일곡지구~본촌~첨단지구~수완지구~운남지구~시청 등을 거치며, 노선 길이는 20㎞다. 2단계 구간에는 정거장 18곳이 설치되며, 2024년 개통 예정이다.

3단계 구간은 타원형 노선인 백운광장에서 진월~효천역까지 아래로 뻗어나온 4.84㎞ 구간이다. 2025년 개통 목표다.

◇1대 정원 153명, 모두 36대… 4분에 한대씩 도착= 2호선은 고무바퀴로 된 경전철이다. 2량을 1편성(1대)으로 한다. 1대 정원은 153명이지만, 서울 지옥철로 불리는 9호선처럼 출퇴근 시간 '초만원'으로 태울 경우 180명 가까이 탑승할 것으로 보인다.

시격은 4분으로 한 정거정에서 차량 1대가 출발한 이후 4분이면 또 출발한다. 방금 차를 놓친 경우가 아니라면 2분여만 기다리면 다음 차를 탈 수 있다는 게 광주 도시철도건설본부 측 설명이다. 정거장 44곳을 거쳐 전체 노선을 한 바퀴 도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1시간이다.

부산 4호선, 서울 우이~신설선처럼 '무인운전시스템'(완전자동운전 관제시스템)이 적용되지만, 운행 초기에는 운전원 자격을 갖춘 승무원을 배치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도시철도 2호선이 5개 자치구를 경유하면서, 역세권 개발은 물론 구도심과 신도심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견인하는 효과도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1호선과 연계해 주요대학 4곳, 고등학교 16곳, 택지지구 18곳, 주요관공서(시청, 5개 구청, 법원·검찰청 등)를 대부분 통과해 수혜인구(영향권 인구)가 최대 103만명(광주 전체인구 70%)까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노선도

정거장 조감도

차량디자인

"3월 입학인데 2월에 장학금 받은 건 '보이지 않는 손' 작용"

한국당 조후보자 해명 반박 간담회
주광덕 "딸 영어 성적 6~7등급"

자유한국당은 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딸의 학사비리 의혹과 관련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해명을 강력 반박했다. 이날 한국당의 기자간담회는 전날 조 후보자가 기자간담회를 한 곳과 같은 국회 본관 246호에서 열렸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 딸인 조씨가 2014년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입학해 1년간 3학점만 수강하고도 2학기 연속 장학금을 받은 것과 관련한 조 후보자의 해명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한국당은 주장했다. 조 후보자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딸의 서울대 환경대학원) 장학금을 청탁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조 후보자의 딸이 환경대학원 장학금을 처음 수령한 때는 2014년 2월"이라며 "입학이 3월인데 2월에 장학금을 받은 게 가능한 일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손'을 작동한 것 외에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조 후보자 딸이 부산대 의전원 입학에 앞서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허위 진단서'를 내고 휴학신청을 했다는 새로운 의혹도 제기했다.

김진태 의원도 "성적이 최하위권인 조 후보자 딸은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800만원, 부산대 의전원에서 1천200만원, 도합 2천만원의 장학금을 받았다"며 "부산대 의전원에서 장학금을 준 교수가 부산의료원장이 됐고, 그 양반이 대통령 주치의까지 추천했다는 문건까지 나온 이상 직무관련성은 충분해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주광덕 의원은 '공익 제보'라고 출처를 밝힌 뒤 조씨의 한영외고 재학 시절 생활기록부에 기록된 영어 성적을 공개했다. 전날 조 후보자는 자신의 딸이 고교시절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데 대해 "저희 아이가 영어를 좀 잘하는 편이다. 참여한 연구원들이 연구성과를 영어로 정리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한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주 의원은 "조씨의 영어 성적이 담긴 한영외고 1~3학년 생활기록부를 추가로 제보받았다"며 "한영외고의 영어 과목은 세분화하면 16개 정도가 되는데 영어작문과 영어독해 평가는 각각 6등급, 7등급 이하로 상당히 하위등급"이라고 밝혔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가 전날 딸의 의학논문 논란과 관련해 "당시에는 1저자와 2저자 판단 기준이 느슨하거나 모호하거나 책임교수의 재량에 많이 달려있었던 것 같다"고 말한 것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김진태 의원은 "그 의학논문은 2008년 작성, 제출됐는데 당시 과기부 훈령 연구윤리지침은 이미 2007년부터 시행 중이었다"며 "지금만 이상한 게 아니라 당시에도 이상했고 윤리위반이었다. 제1저자 등재는 아예 사기였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조 후보자는 '아이가 놀랍도록 번역을 잘했다'고 했는데, 미안하지만 번역을 잘한다고 저자가 될 수는 없다. 제1저자는 고사하고 3, 4, 5 저자도 될 수 없다"며 "번역자가 저자가 된다면 번역사들은 수십 편 논문의 공저자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문 대통령, 태국 순방 마치고 미얀마행

아웅산 수치와 회담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사흘간의 태국 공식 방문 일정을 마치고 두 번째 순방국인 미얀마로 향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현지시간) 전용기를 이용해 미얀마 수도 레피도에 도착해 윈 민트 대통령의 환영식을 시작으로 사흘간의 국빈방문 일정에 돌입한다.

한국 대통령의 미얀마 국빈방문은 2012년 이후 7년 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미얀마 실권자인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과의 정상회담과 민트 대통령과의 면담을 통해 양국 간 지속가능한 동반성장 협력 방안과 한국 기업의 현지 진출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등을 협의한다.

특히 수치 국가 고문과의 회담에서 로힝야족 학살 논란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을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피난민들의 자발적이고 안전하며 존엄한 귀환을 위한 환경이 조속히 조성되길 기대한다'는 정부 공식 입장에 따라 회담에 임할 예정이다. 이어 문 대통령은 양해각서 서명식, 공동언론발표 등의 일정을 갖고 저녁에는 민트 대통령이 주최하는 국빈만찬에 참석한다.

문 대통령은 4일에는 양곤으로 이동, 경제협력 산업단지 기공식과 비즈니스 포럼 등에 참석할 계획이다.

이 기간 미얀마 정부는 한국 기업을 위한 전담 창구인 '코리아 데스크'(Korea Desk)를 개설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첫 순방국인 태국에서 쁘라윳 짠오차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공동 대응한다는 기조에서 방사광 가속기·연구용 원자로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태양광발전소 선착순 분양!!
20년 장기계약으로 안정된 연금식 소득 보장
금융이자소득에 비해 높은 수익률 보장

분양예정지역
고흥 / 해남 / 여수 / 순천 / 광양 / 강진 / 남원 / 영주 / 음성 / 김천 / 천안 등
100kw / 150kw / 200kw / 300kw / 500kw / 600kw / 700kw / 1MW 등
※ 각지역 맞춤형 발전소 가능
인허가 및 시공
각 지역 지사장 모집
한일솔라에너지
상담전화 0505-337-3500, 0505-362-9000
대표전화 1522-3097 / FAX 0505-313-3500
본 사 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 349(중흥동 665-29)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옥상지붕공사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특허청
MODERN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